



소 현 희
(한솔동물병원 원장/수의사)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던 질병동향

2003년, 국가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인해 양계산업 또한 어려웠던 한해였다. 이와 더불어, 여러 질병들이 발생되어 양계농장에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지난12월에는 강독형 가금 인플루엔자가 국내 처음으로 발생되어 새해를 어렵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양계산업에 더욱 발전이 오리라 기대해본다.

지난 한해동안 필자가 필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했던 여러 질병 사례들을 정리, 소개하여, 이러한 피해를 새해에는 줄여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농장에 피해를 입혔던 질병들을 바이러스성 질병과 세균성 질병들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바이러스성 질병 사례에 대해 설명하자면, 뉴캐슬병, 약병원성 인플루엔자, 감보로병, 마레병, 전염성후두기관염 등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서 다발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11월에 발생되었던 전염성 후두기관염(ILT)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산란사만 2동을 운영하는 농장인데, 17,000수 규모의 산란피클리온에서 갑자기 폐사계가 1일 20수가량 나온다고 연락이 왔었다.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 산란율은 5%이상 저하된 상태였고, 알 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계사 내에서 들어가서 닭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군데 군데에 몰려 있는 폐사계가 눈에 띄었으며, 목을 쪽 빼고 개구 호흡하는 개체도 발견되었다.

폐사계를 부검한 소견으로는 인후두와 기관 부위에 가위로 쉽게 제거가 되는 치즈양 응괴 물질이 차있었으며, 일부 혈중난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후두 부위의 이물질이 쉽게 제거되고, 모기가 없는 11월의 유창계사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습성 계두와 감별진단을 할 수 있었으며, 차후에 가검물을 의뢰하여 전염성 후두기관염 확진을 받은 바 있다.

이 농장의 경우 계군의 질병양상이 심한 편이어서, 산란중임에도 불구하고, ILT 백신을 실시하였다. 백신접종 7일 후에는 폐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이전에 발생된 폐사수는 1일 200수가량까지 나왔으며, 옆동의 노계 계군에도 영향을 주어 농장의 경제적 손실이 컸다.

현재는 폐사율과 산란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중추과정에서 백신을 좀 더 정확하게 접종했다면, 이러한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뉴캐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감보

로병, 가금 티푸스 백신 등에 비해 전염성후두 기관염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많이 두고있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지난해에 산란계에서 거론된 바이러스성 질병 중에서 뉴캐슬병 보다도 약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피해가 컸던 것 같다. 뉴캐슬병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프로그램이 많이 소개되어 지고, 약병원성이 발생되어서인지 의외로 뉴캐슬병에 대한 피해는 줄어든 반면, 약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다양한 임상증상으로 농장의 피해가 속출했다.

약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대체적으로 사료섭취량의 저하와 탈색란의 증가로 시작되어지며, 설사를 동반하기도하고, 복막염 등으로 폐사가 늘기도 한다. 2차적으로 타 질병과 복합감염 된다면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한 처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농장별로 계군의 임상증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계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치료인 셈이다.

때로는 약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농장에서 발병 계군을 환우에 바로 들어갔다가 환우 후 산란율이 회복되지않고, 폐사가 다발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는 발병 당시 계군의 증상을 완화시킨 후, 환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서는 가금티푸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기타 세균성 질병이 많이 다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성 질병 발생 후, 대장균증과 괴사성 장염 등이 발생되었었다. 이중에서 괴사성 장염 발생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여름, 비오는 날이 많아 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계군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산란사 4동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1동에서 폐사가 지속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산란을 저하는 별로 없었으나, 약간의 난질 저하와 함께 꾸준히 폐사가 증가된 상황이었다. 폐사계는 한쪽 라인에 몰려 발생되지 않았으며, 계사 내 전반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폐사계를 부검한 소견으로는, 소장점막에 괴사물질이 묻쳐서 두꺼운 위막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장점막에 괴사 반점이 관찰 되었다. 위막은 부검가위로 긁어졌으며, 장점막에 출혈성 소견은 거의 없었다. 그 외 다른 장기의 병변은 육안적 소견으로는 없었다. 농장 병역과 육안적 소견을 근거로 괴사성 장염으로 가진단하고, 페니실린계 약물인 암피실린을 5일 연속 음수 투약하였다. 농장을 재차 방문한 결과, 폐사가 줄고 난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산란 농장에서 주로 발생되었던 뉴캐슬병, 약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마렉병, 가금 티푸스 외에 다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전염성 후두기관염, 괴사성 장염에 대한 필드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를 참고로 하여, 계군을 관리하는데 좀더 다양한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 병원성 질병 발생 외에도 니폴이 막히거나, 다른 사양관리상의 오류로 발생된 피해도 생각외로 많았다. 필드에서는 이슈화된 질병 외에도 여러 관점으로 계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끝으로,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양계 산업이 되길 바라며,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뛰고있는 현장의 모든 분들께 응원 의 박수를 보낸다. **양계**

